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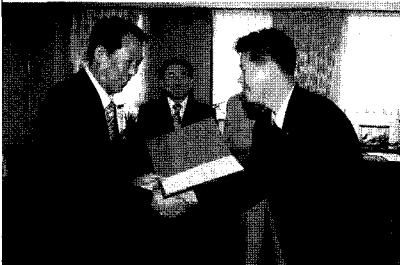
협회소식

KOREA SWINE ASSOCIATION NEWS



강원 양양지역 산불진화 장병 들에 돼지고기 전달

- 농림부 통해 1,000kg 전달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양돈자조금 관리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12시에 농림부를 방문하고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만나 지난 산불진화에 애김없는 노력을 해준 장병들을 격려해 달라며 돼지고기 1,000kg (100마리분·정육)을 전달했다.

최영열 회장은 돼지고기를 전달하며 "평소 국토방위에 불철주야 노력하면서도 지난 양양지역 화재때 산불진화에 인적·물적인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 장병들에게 무척 감사를 드린다"며, "장병들이 전국 양돈농가들이 정성껏 준비한 돼지고기를 먹고 군생활을 활기차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몇년간 전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돼지고기 운동을 벌이는 등 양돈농가들의 정성에 참으로 감사

하다"며, "돼지고기를 장병들에게 전달해 장병들이 힘을 얻어 군생활을 더욱 열심히 잘 하도록 격려하고 돌아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4월 20일 산불진화에 노고가 큰 강원도 양양군 소재 8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돼지고기를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농단협 회장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방문 농정현안 논의

- 축산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법 규제 합리적 완화 요구
-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액비 지원도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엄성호) 회장단 및 임원진은 지난 4월 14일 오후 3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방문하고 농·축산업 현안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왔다.

최근 새로 선임된 엄성호 회장(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을 비롯, 최영열 부회장(양돈협회장), 목찬군

부회장(새농민회장), 최성희 부회장(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과 함께 정해운 감사(양봉협회장), 류재춘 감사(관광농원협회장) 등 총 5명의 임원진은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이규택 의원(이천·여주), 맹형규 의원(송파구갑) 등을 만난 자리에서 농·축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내 농·축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요즘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컴퓨터산업 등 최첨단을 살고있지만 컴퓨터를 먹고 살 수는 없다"며, "우리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축사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법 개정, 소득세법 제도 개선,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영열 회장 농단협 부회장 선출



최영열 회장
2005년 정기총회에서 신임 부회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이 지난 3월 29일 축산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농민단체협의회

장으로 선임됐다. 농단협 회장에는 엄성호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부회장에는 최영열 회장을 비롯 목찬균 새농민회장, 최성희 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이 선출됐다.

농업진흥지역내 축사 설치 가능 토록 농지법 개정 촉구

- 농축산단체장 국회방문, 농지에 축사신축 허용 건의

엄성호 농민단체협의회장과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농축산단체장들은 3월 29일(화) 조일현 의원(열린우리, 강원 홍천·횡성), 김영덕 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 등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음식점의 식육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법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은 "우리 축산업은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농지에 축사신축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에 축사설치를 허용하

는 것은 오히려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돈사 30% 농업진흥지역 이전시 농지 '0.1%'만 필요

우리 협회 조사결과, 실제 국내 사육두수 약 900만두중 30%인 270만두 사육규모를 농업진흥지역 내로 이전할 경우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약 0.1% 정도에 불과한 면적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9백만두에 해당하는 사육두수의 30%(270만두)를 농업진흥지역 내로 이전하면, 이들 돼지에 필요한 면적은 총 12,015,000㎡가 된다. 따라서 필요한 면적 12,015,000㎡는 총 1,212ha(3,634,538평)로 전국 농업진흥구역 약 1,153,000ha의 0.1%에 불과해 사실상 농지 감소를 우려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

"자원화 정책 정착시까지 해양배출 현수준 유지돼야"

- 해양수산부, 향후 6년간 해양배출량 60% 감축계획

- 회장단, 해양수산부 방문 업계 요구사항 전달

해양수산부가 올해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량을 작년 대비 5.3% 감소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배출량을 9,228천㎡로 묶어 2004년 9,749천㎡(잠정) 대비 5.3%를 감축하고, 올해를 기준으로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오는 '07년 7,000천㎡, '11년도 4,000㎡까지 배출량을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이 과거 10년간 약 10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나온 조치이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과 김동환·이병모 부회장, 김동성 전무는 지난 4월 7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을 방문해 해양배출량 감축 계획과 관련 해양배출량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 등 양돈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우리 협회는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의 이번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감축 계획과 관련 이미 환경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대책'을 수립,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가축분뇨를 오염원이 아닌 자원화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준비와 경종농가 이용을 위한 여건 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대책'을 수립중이나 동 대책의 정착까지는 1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은 해양배출량을 현 수

「가축분뇨 관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초안 마련

- 4월 13일 농림부에 제정(안) 제출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13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축분뇨 퇴·액비의 이용 촉진을 위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농림부에 제출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가축분뇨관리및이용촉진에 관한법률(안)을 제정키 위해 올해 1월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축산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4차에 걸쳐 심층 회의를 개최한 후 4월 11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동 법(안)을 13일 농림부에 제출해 환경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법 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협회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농림부에 제출함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향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법 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처리시 가축분뇨의 이용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가축분뇨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용

어를 통일해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개념 설정으로 관리 및 이용을 유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는 이의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가축분뇨 이용 촉진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시·군·도지사, 농림부·환경부 장관은 가축분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등 가축분뇨관리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의 유통 및 이용 계획을 수립

■민간업자 및 조합, 협회 등이 가축분뇨퇴비액비의 운반, 살포업을 운영할 경우 그에 대한 운영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가축분뇨에 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도사업 등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센터를 구성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축산환경 교육센터 설립 및 축산환경 기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과 특히 하위법령 퇴·액비를 많이 이용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명시

■시장·군수는 경종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및 보급을 장려하고 육성하고,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관리시설 설치, 운영, 시설 개선자금 등을 지원

■퇴·액비 사용자인 경종농가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검증된 가축분뇨 퇴·액비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강화 등

준으로 유지하고 향후 5년~15년
까지 해양배출량을 점차적으로 감
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건태 명예회장 농단협 공로 패 수상



▲김건태 명예회장(좌), 최준구 농단협
회장(우)

우리 협회 김건태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에 열린 2005 년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
로써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에 김
건태 명예회장은 감사의 말로 화답
하고, 앞으로도 농업 발전에 관심
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수상 소
감을 밝혔다.

“축발기금으로 인공수정분야 지원율”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에 양돈
장 인공수정분야 지원을 포함시켜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13일 농
림부에 “축발기금으로 우수시센타
에서 종모돈 구입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고, 우수 시센타 인증제를
도입해 시센타 수준을 향상시켜 우
수종돈 유전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우리 협회에서 지난 2003년 농

림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결과’에 따
르면 국내 양돈장 중 인공수정을 실
시하는 농가는 무려 89%에 달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시센타는 영세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축개량비 지
원도 대가축에만 치우쳐 있어 우량
유전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비용 ‘충 북’ 가장 높아”

- 가축분뇨 처리공법 및 처리비용 분
석 결과

우리 협회가 최근 지역별 해양
배출 비용과 퇴·액비의 최종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충북지역이 톤당 2만1천
원~2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기지역은 톤당 1만6천600원
~2만2천원, 충남지역은 1만2천
800원~2만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1만4천원~1만6천원, 경북
1만원~2만원, 경남 1만1천500원
~1만3천원, 제주 1만1천500원~1
만2천5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액비 최종 유통은 해양투
기가 4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퇴비는 퇴비 유통업체
에서 수거하는 경우가 43.6%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열 회장, 차단방역 중요성 강조

- KBS 라디오 ‘농수산 정책진단’서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은 지난
4월 2일 방송된 KBS 라디오 프로

‘농수산 정책진단’에서 최근 발생
이 확인된 북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국내에서는
더 이상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축산관계자
들의 철저한 차단방역 노력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양돈을 직접 경영하
는 한 농가의 입장에서 정부 당국
의 방역정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
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방
역관련 조직이 잘 활용되어 국내
차단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산 돼지고기는 안전해”

- 돼지고기 안전성 강조 해외서도 예
외 없다

해외에서도 국산돼지고기의 안전
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태국에서 성황리 개최된
VIV아시아 행사 관람 등 외국으로
여행을 하는 양돈농가 및 일반 국
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협회
이병모 부회장 등이 태국을 방문해
박람회와 관람하고 여행사의 여행
일정에 맞춰 태국 한의사를 방문한
바 있었는데, 한의사는 한약을 조
제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돼지고기는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어 먹으면 해
롭기 때문에 조제한 약과 함께 돼
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
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소
동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에 따르면 한의사
가 실제 상황과 다른 사실을 가지
고 일반 관광객들에게 마치 돼지고
기에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는 것으

로 믿게 해 결국 소비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는 돼지고기를 멀리하게끔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번 여행 담당사였던 (주)베스트원 투어 관계자에게 국내에서는 양돈농가에서 출하한 돼지고기에서 항생제가 검출될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한 규제검사기간을 6개월로 늘려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에서는 항생제가 발견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행일정 등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태국 현지 한의사에게 잘못된 상식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멀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베스트원 투어 장의제 사장은 태국 현지 한의사에 강력 항의하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해 왔으며, 태국 현지 한의사로부터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과문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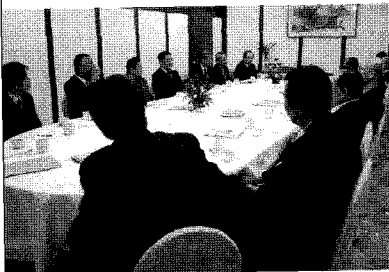
이동가축방역관리 확인시스템 제도 보완 실효성 확보해야

-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서 최영열 회장 의견 제시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은 지난 4월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축산관련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동가축방역관리 확인시스템 시범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제도 도입 전에 제대로 된 점검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검역원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별 청정화 근거 및 이동가축의 신고의무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돼지 입식시 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라고 답해왔다.

원로양돈인, '양돈관계자 공동의 자세' 주문



지난 3월 23일(수)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에서 열린 원로양돈인 간담회에서 우리 협회 김건태 명예 회장·김동환 부회장, 전동용 원로양돈인 회장·최상백 부회장 등 원로양돈인들은 양돈협회와 양돈조합은 상호 보완적인 단체로 양돈인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융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남은 음식물 사료이용시 처리 기준 준수해야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22일 전국 임원 및 지부장에게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 및 급여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은 음식물 사료는 사료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돼지사료로 사용할 경우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사료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각 지부(회)의 관내 양돈농가 중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 처리기준을 준수해 돼지에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해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돈장 냄새저감 안내서' 발간 추진

- 악취방지대책 소위원회서 결정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18일(금) 축산환경대책위 악취방지대책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원회 위원들은 '양돈장 냄새저감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소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따라서 김두환 소위원회 위원장, 유재일 대표, 유용희 연구관, 장영기 교수, 양돈협 정종극 감사, 김동성 전무와 안혜성 대리는 소책자 제작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소책자 내용으로 악취방지법 해설, 축산악취의 특성, 악취의 측정, 악취 조절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양돈농가 등에 악취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외국 여행시 방역 준수해야

우리 협회는 최근 양돈농가들의 외국 축산관련 국제 박람회 참관 및 여행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 여행시 방역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양돈농가 중 외국 여행을 다녀온 농가에서는 여행시 농장이나 축산관련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시 돼지고기, 족발,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 불법반입축산물이 확인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득이 농장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공·항만에서 반드시 검역 당국에 신고하고 소독 등 검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우리 협회는 이와 함께 국내 도착 후에 의복 등을 세탁하고 목욕과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최소 2주 이상 축산농가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정돈 경매가 '사상 최고치' 갱신

- 제2검정소 176차 검정돈 평균 낙찰가 159만원

지난 4월 12일(화) 우리 협회 공인중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76차 검정돈 경매결과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158만8천936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낙찰 총액도 2억9천872만원으로 3억원 가까이 달했다.

이번 경매에서는 슈퍼돈 3두와

최우수돈 10두를 비롯해 총 188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88두 전량 낙찰됐으며, 수컷과 암컷 평균 낙찰가가 모두 1백만원을 훌쩍 넘었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경기도협의회, 검역원 평택지소에 돼지고기 전달

- "한마음, 한뜻으로 힘모아 차단·국경·해양방역에 힘써야"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기간을 맞이해 우리 협회 경기도협의회(김건호 회장)는 지난 4월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평택출장소(이하 검역원 평택출장소)를 방문해 돼지고기를 전달하고, 검역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전남도협의회, 완도 해양 경찰서에 돼지고기 전달

- 철저한 밀수단속 당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맞이해

우리 협회 전남도협의회(최희태 회장)는 지난 4월 4일 완도 해양경찰서를 방문하고 1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해상 경계근무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충남도협, 'KISTOCK 2005'에 적극 참여키로

충남도협의회(회장 남성현)는 지난 4월 6일 충남 부여 나룻터 회관에서 도협의회 회원들과 축산 관련 기자 및 방역본부 충남도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월례회의를 열고, 향후 충남도협의회 운영 계획을 모색했다.

도협의회는 오는 8월말에 개최되는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돼지고기와 우리 협회를 홍보하기로 했으며, 무료시식회 및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도협의회는 앞으로 충남 당진, 서산, 보령, 부여, 아산, 홍성 등 지역에서 무료시식회를 열고, 예산, 공주, 청양, 천안, 서천지역에서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8대 경남도협의회 회장에 하태식씨



경남도협의회는 2005년 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경남도협의회 회장으로 하태식 이사를 선출하고, 박창식

부회장, 함연수 감사, 여영성 사무국장을 선출했다.

또한 도협의회 사무국을 창녕지부로 변경했으며, 2003년과 2004년 결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도협의회 사무국 : 055-532-9451

신임 고성지부장에 최상림씨



고성지부는 지난 1월에 제17·18대 지부장 이·취임을 갖고 고성

최상림 고성지부장 신임지부장 최상림 씨에게 인준서를 전달했다.

이에 최상림 신임 지부장은 임순조 전임 지부장의 뒤를 이어 고성지부를 이끌어가게 된다.

신임 영천지부장에 권춘구씨



영천지부는 2월 23일 정기총회를 갖고 김성곤 전임 지부장에 이어 차

권춘구 영천지부장 기 신임 지부장으로 권춘구씨를 선출했다. 권춘구 신임 지부장은 현재 4천두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주)대구음료 영업과장 및 (주)중앙주류합동상사 대표 등을 역임하고 전국 새농민상을 수상한바 있다.

신임 함양지부장에 염형섭씨

함양지부는 최근 박성웅 전임 지부장의 뒤를 이어 함양지부를 이끌어갈 신임 지부장에 염형섭씨를



선출했다.

염형섭 신임 지부장은 함양군 휴천면 청년회장을

염형섭 함양지부장 역임하고 현재 함양군 자원봉사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합천지부, 벚꽃 마라톤서 대규모 돼지고기 시식회 개최

- 금방 삶은 돼지 수육 맛 "최고"
- 최영열 회장, 돼지고기 소비홍보 위해 직접 뛰어



우리 협회 합천지부(지부장 김수정)는 지난 4월 3일(일) 합천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합천 벚꽃마라톤 대회에 맞춰 대규모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를 개최했다.

돼지 30마리분의 돼지고기와 60개의 뒷다리 훈제햄이 소요된 이날 시식회에서는 특히, 30마리분의 돼지고기가 행사장에서 직접 수육으로 삶아져 삼겹살에 입맛이든 많은 인파들에게 '돼지고기의 참맛'을 느끼게 해 주었다. 돼지 수육과 뒷다리 훈제햄을 시식하던 한 시민은 "삼겹살 보다 훨씬 담백하고 감칠맛이 난다"며 돼지고기 맛을 극찬했다.

한편 이날 벚꽃 마라톤 대회에서는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이 직

접 마라톤에 참여해 돼지고기 소비 홍보에 앞장섰다.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는 '진해군항제'와 함께 봄철 대표적인 벚꽃 행사로서 합천 시민과 마라톤 매니아들 1만 여명이 찾는 대규모 마라톤 대회이다.

우리 협회 합천지부는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부위별 소비편종을 줄여 나가기 위해 매년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전 회원들과 가족들이 직접 개최하고 있다.

영주지부, 돼지고기 인지도 강화에 앞장



영주지부(지부장 김익현)가 국산 돼지고기의 영양학적 가치와 안전성,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앞장섰다. 영주지부는 지난 4월 3일 영주시 민운동장에서 영주시민과 외국인의 참여도가 높은 제3회 소백산국제마라톤대회를 맞이해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식회는 대회에 참석한 많은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돼지고기의 새로운 요리기술 등을 소개해 돼지고기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았다. 영주지부는 앞으로도 시식회를 통해 저지방부위의 간편한 조리

법을 소개하고, 모든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영양식으로 즐겨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지부, 돼지고기 시식회로 인지도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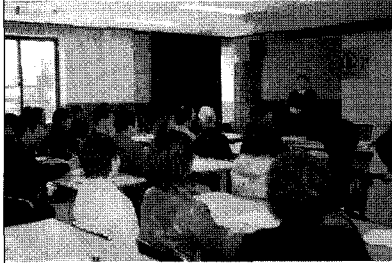


해남지부(지부장 박주남)는 양돈 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 해남 송호리 해수욕장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개최했다. 제3회 땅끝 마라톤대회 시기에 맞춰 개최된 '땅끝포크' 무료 시식회에는 약 3천명의 인원이 참석해 돼지고기를 시식했으며, 해남지부는 '땅끝포크'를 홍보함은 물론 돼지고기 요리 책자 등을 통해 돼지고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해남지부, '번식돈 사양관리' 주제 세미나 개최

해남지부(지부장 박주남)는 지난 3월 18일(금) 농업기술센터 3층 소강의실에서 양돈농가 기술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번식돈 사양관리를 주제로 세진컨설팅 김기룡 소장이 'PSY25두 달성을 위한 사양



관리' 강의를 펼쳐, 세미나에 참석한 75명의 참석자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갔다.

김천지부, 혼합백신 공급 요청

김천지부(지부장 이지열)는 정부의 무상공급 예방접종약과 관련해 양돈농가에 혼합백신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북도 등에 건의했다. 김천지부는 TGE 백신과 관련해 최근 TGE, PED 복합백신이 생산돼 농가에서 복합백신을 선호하고 있어 무상 공급하는 TGE 백신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PED는 연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 복합백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돈열백신 무상공급의 경우에도 돈열과 돈단독 혼합백신 공급을 요청했다.

평택지부, 저지방부위 우수성 시민에게 홍보

평택지부(지부장 김용진)는 지난 4월 26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택시 이충동 레포츠 공원에서 '평택 돼지고기 시식회'를 개최했다.

평택지부는 평택시민 약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개최해 안심, 등심, 전·후지 등 저지방부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보령지부, 환절기 양돈질병 예방에 만전을



보령지부(지부장 정재홍)는 지난 3월 10일(목)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보령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양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채찬희 교수는 세미나에 참석한 90여명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환절기 양돈질병'을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참석자들은 봄철 환절기와 황사를 맞아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주지부, 환절기 질병 방역 철저 당부

양주지부(지부장 조윤상)는 지난 4월 12일(화) 지부 사무실에서 4월 월례회의를 열고, 지부장 및 회원 등 총 38명은 환절기 돼지 질병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조윤상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의 참석자들에게 "구제역과 PED, 황사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양돈**